

천방지축음악극

# 걱정된다 이가죽

엄마~할아버지 똥 똥어!!!

2014년 7월 8일 화요일 1회 14:00(단체관람) / 2회 19:00

백운아트홀(원주시청) 무료 선착순 입장(11세이상관람가)

※ 단체관람은 사전예약필수 | 공연문의 033-746-0199/8

작 이시원 각색·연출 고선웅 출연 류동철, 김미옥, 조영선, 양진춘, 한범희, 강아림, 한수경, 정현호, 채윤희

협력연출 남궁련 작곡/음악 남상미 무대디자인 김대한 의상디자인 강기정 소품디자인 김정란 제작PD 이수민 기획 정희섭, 김성수, 이서현

“제사 끝나면 우리가족 해체 들어갑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



가족은 늘 그림자만 동시에 귀찮고 불편하다. 오랜만에 모여 앉으면 좋은 얘기보단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그러다가 싸우고 후회를 한다. ‘한 핏줄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 생각 한번쯤 안 해 본 사람이 있을까? 뼈격거리면서도 가족들은 모인다. 돌아서서 후회를 해도 또 만나고 또 싸운다. 그리고 보면 만나고 모여야 비로소 부딪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는 게 아닐까. 돌아서서 불현듯 깨닫는 가족에 대한 후회조차 사랑일지 모르겠다. 단비네 가족도 모두 모여 밥을 먹은 마지막 밤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걱정된다 이 가족〉 줄거리

3대가 함께 사는 단비네는 할머니의 기일에 온가족이 모인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도박에 빠져있는 아빠, 돈만 생기면 성형을 하는 고모, 술에 절어 사는 백수 삼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중2 소녀 단비까지. 천방지축 가족들 때문에 화병이 생긴 엄마는 한숨만 늘어간다. 한동네에 사는 작은 할아버지는 심심하면 단비네 집에 들러 고주알미주알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오늘은 고모를 따라다니는 오충삼 씨까지 남의 집 제사에 와서 기웃거린다. 억지로 제사에 불러온 가족들은 모여서도 투덜투덜 불만만 늘어놓고, 급기야 할아버지는 똥을 싸서 손에 들고 나타나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더 이상은 못 참아!’ 보다 못한 엄마는 급기야 가족들 앞에 갑작스런 가족해체를 선포한다.

천방지축 중구난방 제멋대로인 이 가족, 과연 오늘 밤 해체할 수 있을까?



각색 연출 **고선웅**

靑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13 제32회 영화연극상  
12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수상  
10 동아연극상 연출상, 작품상  
06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모래여자〉 〈마리화나〉 〈팔인〉 〈강철왕〉 〈락히맨쇼〉  
〈들소의 달〉 〈인어도시〉 〈칼로막베스〉 〈푸르른 날에〉  
〈늘어나는 기술〉 〈원더풀 라이프〉 〈풍악〉 〈오로라트레인〉  
〈외톨이들〉 〈부활〉 〈백묵의 원〉 외 다수



작 **이시원**

11~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집중육성지원사업(문학) 선정  
11 아르코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희곡작가부문 선정  
10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당선 “번신”  
09 극단 작은신화 여덟 번째 우리연극만들기 당선  
05 제7회 옥랑희곡상 자유소재부문 최우수상 “녹차정원”

극작 〈데이트 DATE〉 〈녹차정원〉 〈천국에서의 마지막 계절〉  
〈번신〉 〈자라의 호흡법〉 〈로드킬스〉 〈냉동인간〉  
〈시계가 머물던 자리〉 〈위풍위동 인생산보〉 〈좋은 하루〉  
〈8월의 축제〉 〈내 심장의 전성기〉 등  
각색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저서 〈희곡집〉 〈녹차정원〉



황기동(할아버지) **류동철**



김달래(할머니) **김미옥**



황기봉(작은할아버지) **조영선**



오충삼(고모의 남자친구) **양진준**



황진철(아빠) **한범희**



정예리(엄마) **강아림**



황신애(고모) **한수경**



황진수(삼촌) **전현호**



황단비(딸) **채은희**